

어린이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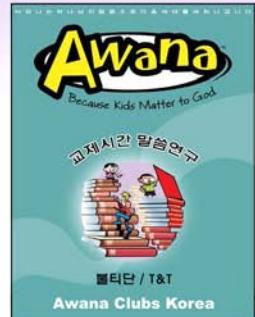
# 사실을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 목적 : 사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말 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를 알게 해준다.

■ 목표 : 이과의 결과

1. 행 5:1-11에 나타나는 거짓말 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거짓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2. 거짓말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고
3. 거짓말의 세 가지 면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 자료 : 칠판, 분필, 성경 구절 카드



■ 말씀 준비(2~3분)

어린이들에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태수와 동생 영희는 거실에서 공 던지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거실에서는 공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엄마가 시장에 간 사이에 기회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큰 일이 났어요. 태수가 공을 너무 힘껏 던진 바람에 그만 영희는 그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은 램프의 받침을 맞추었고, 램프가 그만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난 몰라. 공을 밑으로 던지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꺼야!”  
영희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이젠 엄마에게 혼나겠다.”

“엄마가 모르게 하면 되지 뭐” 하고 태수는 말했습니다.

“뭐라구! 어떻게 램프가 깨진 것을 감출 수 있단 말이지? 더구나 저 램프는 엄마가 얼마나 아끼는 것인데. 엄마가 들어오시자마자 램프가 없어진 것을 아실텐데” 하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나, 엄마는 모를거야” 하고 태수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어떻게 엄마 눈에 이것을 안 띄게 할 수 있지?” 하고 영희는 물어 보았습니다.

“본드를 가져다가 이것을 다시 붙여 놓으면 된다구” 하고 웃으면서 태수는 말했습니다.

“난 내 방으로 갈거야. 난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하며 영희는 신경질을 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재빨리 자기 방에 들어가서 본드를 가지고 나오더니 깨진 램프 조각들을 이리 저리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빨리 오시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태수는 깨진 조각을 맞추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보기에 그럴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아빠가 신문을 보기 위하여 거실로 가셨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거실에서 아빠가 태수와 영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거실에 갔을 때, 아빠는 깨진 램프를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시다가, 아빠가 깨진 램프를 들고 계신 것을 보시더니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니? 내가 좋아하는 램프가 이렇게 깨졌다니” 하며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내가 불을 켜려고 했을 때 이렇게 부숴져 버렸구나.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너희들은 아니?” 하고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이와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뜨렸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때대로 곤란한 일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말씀연구(3~4분)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대처하시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거짓말을 한 부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도행전 5:1-11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땅은 자기들의 소유였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받은 돈도 결국 자기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죽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땅을 판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전액을 교회에 바친 것처럼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판 일부만 바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은 전액을 교회에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애베소서 4:25절 전번을 읽게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엡4:25전반절)

#### ■ 말씀해석(4 ~ 5분)

거짓말이란 무슨 뜻일까요?  
칠판에 "거짓말이란..." 하고 쓴다.

거짓말이란?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린이들의 대답을 칠판에 적는다.

태수나 영희가 그들 아버지의 대답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가 전기줄을 물고 잡아 당겨서 스탠드가 쓰러져 램프가 깨졌어요. 엄마가 아끼던 램프인 것을 알고 재빨리 본드로 붙여 놓았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쁜 것일까요?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을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어떨까요?

태수나 영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램프는 깨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램프라는 것을 알고 재빨리 본드로 붙여 놓았죠."

위의 답변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습니다.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반만 사실을 말해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태수나 영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희와 내가 함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거실에 나와보니 램프가 그것도 엄마가 아끼시는 램프가 깨져 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다르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까요?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봅시다.

#### ■ 말씀적용(1 ~ 2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다른 가족에게는? 친구들에게는? 학교 선생님께는?

여러분이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처음 거짓말 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두 번째의 거짓말을 낳고 두 번째의 거짓말은 세 번째를.. 그러다 보면 결국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이야기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지난 주간 거짓말 한 것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20~30초 정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거짓말 한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사실대로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